

# 관점 바꾸니 전략보여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

##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8〉(주)스트뉴인터내셔널 장서린 대표

### 지역 내 유일한 패션기업...지역인재 육성 목표 창업 1년만 문체부 장관상 “매우 이례적” 평가



왼쪽부터 (주)스트뉴인터내셔널 장서린 대표와 재할용이 필요한 의류들을 정목해 만든 업사이클 청바지. 장 대표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아이디어융합팩토리’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모습.

“위험을 극복하고 개척자가 된다면,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서린(26) 대표가 이끄는 (주)스트뉴인터내셔널은 ‘이코 프리덤 랩(Aego Freedom Lab)’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패션기업으로 컨템포러리(Contemporary·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최신 패션 경향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것)한 유니섹스 의류들을 제작 판매한다.  
이코 프리덤 랩(Aego Freedom Lab)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일상 속 영감에서 시작된 생각의 흐름을 해체주의 디자인을 통해 구현하는 브랜드다. 특히 재할용이 필요한 의류들을 해체하고 다시 정목해 만든 업

사이클(Upcycle) 청바지는 소량 생산으로 희소성과 특별함을 더한다.  
전남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한 장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없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당시 4학년 학부생이던 그는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각종 창업 대회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 결과 패션과 문화를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사업 계획서만으로 2021년 9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소셜디자인랩’에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아이디어융합팩토리’에서 2021·22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투자와 미팅 제안이 빗발쳤고 장 대표는 2022년 12월 창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2월 까지 제품 연구와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창업에 확신과 힘을 실어준 결정타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공모전’에서 문체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법인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 15년 차 이상의 베테랑 기업과 경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지방에 본사를 둔 패션기업이 드물다 보니 예로 사항도 많다. 패션 산업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트렌드에 민감한 사업 특성상 조금만 방심하면 도태되기 쉽고 패션디자인 등 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인력 확보도 어렵다. 하지만 장 대표는 올해 2월 서울에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약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그는 “광주에서 패션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진 않지만 잘 성장하면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으로 옮길까 고민도 많았지만 광주에 본사를 두기로 마음을 굳혔고 지역 청년들을 고용해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현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에 출강하면서 선·후배들에게 전공을 살려 창업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편집숍인 무신사에 입점해 각종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

회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 등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5년 내 유럽으로 판로를 확장해 간다는 목표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장 대표는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 패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점이 됐다”며 “패션 사업의 희소성 때문에 지원 사업을 받기도 수월하고 기존 창업자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지방에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하려면 마음이 급하더라도 차분히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사업 등록을 하기보다 스타트업 기업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내 사업 계획에 적용해보면서 성공 여부를 가능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슬 기자

**Panasonic**

**REAL PRO MAN1**  
**가정의달 보상판매**  
**최대 100만원 할인**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89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이벤트**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MAN1 최대100만원, MAK1을 포함한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MAK1	MAJ7	MAF1	MA32	MAC9	MA22	MA05

기간: 2024. 5. 1 ~ 2024. 5. 26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 레이저 기술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 광산업진흥회,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선정...5년간 270여명 육성

한국광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돼 레이저 기술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6일 진흥회에 따르면 산업부에서 5년간 총 62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에 선정돼 조선대·부산대·인하대와 함께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은 우주항공, 국방, 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를 비롯한 과제 참여 기관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저 및 광학 분야 석·박사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레이저·광학 특화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270명, 취업률 82%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산학 프로젝트를 실시,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근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인력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 목포 산정새마을금고·전남사회복지협 사회공헌 MOU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협력

목포 산정새마을금고는 6일 “최근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2024년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정새마을금고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꿈이 모락모락 방구미기’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사업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정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판용 산정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는 산정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이웃돕기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6일 “최근 광주 서구청을 방문해 김이강 서구청장을 만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시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후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4천900만원을 기부했으며 김장나눔 봉사활동 등 매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재만 기자

